

시론



주홍
자유예술가

“봉준호 감독이 광주극장에 온다구요?”
“광주극장 개관 90주년이라서 특별기획으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세계에 영향을 준 영화를 함께 보고 직접 감독의 이야기를 듣는 ‘봉준호의 극장 노트’를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친구들이 모여 영화 이야기, 극장 이야기로 수다방이 열렸다.
1985년 일제 강점기에 개관하고,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1950년 6·25, 1980년 5·18까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곳, 광주극장. 국내 유일의 단관극장으로 남아 공동체의 화로애락을 품어주고 있는 엄마 같은 광주극장에서 친구들이 만나기로 했다.
봉준호 감독의 장편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와 ‘살인의 추억’, ‘마더(흑백판)’ 등이 상영되고, 11월8일은 봉준호 감독에게 영향을 준 ‘바톤 핑크’를 함께 관람하고 시네토크가 열렸다. 1천517석 광주극장 1층과 2층 관객석에 가득 찬 사람들, 영화와 영화관은 어떤 곳

내 사랑 광주극장

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가슴 뛰게 하는 걸까?
봉준호 감독과 함께 감독이 선정한 영화를 광주극장에서 보는 시간이 왔다. 1991년 개봉한 조엘 코엔 감독의 ‘바톤 핑크’, 영화가 상영되기 전 봉준호 감독 앞으로 팬들이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감독은 네임펜으로 봉준호 이름을 쓰고 있었다. 그때 2층에서 흰 리본이 실에 매달려 봉준호 감독의 손 앞에 내려왔다. 관객석은 웃음바다가 됐고, 리본에 사인을 받은 끈은 2층으로 유투호 흔들거리며 올라갔다. 한 편의 영화가 끝나는 것처럼 눈앞에 그 장면이 어른거린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환호하는 순간을 만들어 준 2층 관객의 유쾌한 퍼포먼스였다.
광주극장은 어떤 마법 같은 힘이 있다. 그 건물로 들어가면 시공간을 떠난 특별한 나를 만나는 장소가 된다.
중·고교 시절 기말고사가 끝나면 단체영화 관람이 있었다. 학생 수가 많았던 그 시절 두 학교가 함께 영화를 보게 되면 통로까지 뻗뻗하게 앉아서 옆 친구의 땀 냄새,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영화를 보곤 했다. ‘로미오와 줄리엣’,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테스’, ‘벤허’를 보며 비극적인 사랑과 삶의 웅장함을 느끼고, 1980년대 후반에는 홍콩영화 속에서 주윤발, 장국영, 유덕화를 보며 마치 공연장에서 호응하

듯 주인공이 돼 몰입하던 그 찬란했던 어느 날로 시간을 돌려놓는 곳이 광주극장이다. 기말고사를 망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단체 관람하던 어느 날, 비비안 리가 등장할 때마다 그 아름다움에 넋이 나갔다. 숨죽이며 영화에 몰입되어 있을 때, 비비안 리와 클락 케이블의 마지막 키스신! 그 순간 관객석에서 동시에 터지는 “음~” 신음 소리는 극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거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이 명대사처럼 영화를 보며 한바탕 웃음과 같이 망쳐버린 기말고사의 기억은 날아갔고, 다시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수 있었다. 말 그대로 시네마 천국을 선사한 곳이 광주극장이다.
광주극장 영화표 내장을 예매하고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친구 세 명에게 전화했다. “광주극장에서 우리 영화 볼까요?”
우리는 두 시간 미리 도착해서 광주극장만의 명소, 미술실을 구경했다. 박대규 화백과 시민들이 직접 그린 영화 간판에 감동하고, 극장 바로 옆에 있는 빵가게에서 갓 구운 빵을 뜯어 먹으며 골목을 어슬렁거렸고, ‘소년의 서’ 서점에서 책 냄새를 맡고 골목 베틀시장을 구경했다. 영화를 보며 함께 감탄하고 저녁엔 서쪽 하늘의 노을을 배경으로 광주막걸리에 취했다.
광주에는 광주극장이 있다.

社說

연기에 또 연기, 꼬여버린 지산IC 우측 진출로 개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지산IC 우측 진출로 개설 사업이 안전 문제에 발목잡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도시계획위는 터널 출구와 진출입로 간 거리가 짧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민 불편 해소 대책까지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도로 폭을 3.5m에서 3.2m로 축소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90km에서 80km로 낮추는 설계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광주시는 다음 회의가 12월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안정성을 입증할 데이터를 제시할 방침이다.
경제적 손실 정도를 반영한 설계 대안 및 진출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가 마무리된 만큼 구조적인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자료를 보완해 위원들을 설득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내년 6월에는 첫삽을 뜬다 주무된다. 시는 내년 4월 실시계획 인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도시계획위에서 제기된 사항은 내용을 추가해 해소하고 다른 행정 절차도 병행할 계획인 만큼 일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협의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선8기 밀린 현안 ‘5+1’ 중 하나인 지산IC의 해법 찾기에 본격 나서 시민 편의와 안전성, 경제성을 두루 갖춘 대안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고 했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77억원이 투입돼 건설된 좌측 진출로를 폐쇄해 차로로 전환하며, 우측 진출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공사는 당초 2024년 6월에서 같은 해 9월로, 또 올해 상·하반기로 연거푸 미뤄졌고, 이번에도 다시 늦춰지게 됐다. 해묵은 숙제가 된 셈이다. 해서 당초 계획 대비 2년 가까이 지연된 바, 2026년에는 정말로 실현될지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고 있다.
광주시가 배수진을 칠 태세지만 안팎에선 이 역시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총사업비가 228억원으로 불어났다. 민선 7기에서 시작돼 민선9기로 공을 떠넘길 가능성을 배제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행정의 낭비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신뢰 훼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계속 꼬이고 있는 지산IC 진출로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수년간 공화전만 거듭하는 답답한 현실이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지방 재정분권 확대 못하면 균형발전은 헛구호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후 처음 열린 행사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음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도 재정분권 강화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강 시장은 “과거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 재정 형평화를 이유로 수도권, 비수도권 특·광역시, 비수도권 도의 3단계로 구분한 배분 방식은 결국 광역시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 중심 구조로 전환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가장 합리적 제도라며 “세율을 높이면 비수도권 시군의 자립기반을 강화해 보다 고르게 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다. 재정 자립 기반의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 내년 지방정부 예산 증가율이 서울(7.1%) 제외하

고 모든 지역에서 경상성장을 (4%) 이하에 그치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취득세·재산세수 감소에 기인한다.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실질 분권을 위해 비수도권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취약한 재원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 대한민국은 영원히 수도권 블랙홀에 갇히게 된다. 그동안 전국의 자치단체들도 줄기차게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해왔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소비세·교부세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도 무관지 않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도 깊은 공감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하겠다고 피력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방자치제 도입 30년이 됐지만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역대 정부마다 선연적 수준에 머물렀던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대로면 지역 소멸이 더욱 빨라진다. 중앙·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협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문화난장



김종본
前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우리 사회는 세계적인 경제 규모에 비해 정치·사회영역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현저히 낮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이고,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없다. 지방의회에서도 여성의 비율은 30%를 넘지 못한다.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은 8.8% 수준이고, 금융공공기관의 여성노동자 비율은 50.7%이지만 2급 이상 고위직은 11.3%에 불과하다. 흔히 양성평등 시대라고 말하지만 권력과 자원의 분배 구조는 남성 중심적임을 알 수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부 고위직 등에서 여성 비율이 점차 늘고 있지만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성별분업적 문화와 가부장적 정치·사회구조의 문제다. 기업의 승진제도도 정당의 공천구조가 여성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의사결정 구조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의회와 행정부, 지방정부, 기업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절반만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여성 리더십은 단순히 ‘여성도 할 수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와 의사결정권 확대는 왜 필요한가

는 가능성의 차원이 아니라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리더십은 협력과 돌봄, 관계적 사고를 강조하며, 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낸다. 특히 돌봄, 환경, 교육, 복지, 같은 삶의 문제들이 정치·사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오늘날, 여성의 경험과 관점은 공공정책에 개혁을 불러넣는다. 여성의 대표성은 단순한 수적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정책이든 중립적인 정책은 없다. 누가 만들고, 어떤 경험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수혜자가 달라진다. 출산휴가, 돌봄 서비스, 여성 노동, 지역사회 복지정책 등은 여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현실을 반영해 설계된다. 여성의 경험이 정치로 진입하지 못하면 정책은 늘 보조적 수준에 머물고 만다. 여성의 시각이 제도에 반영돼야 사회적 약자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간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다. 제도적 민주주의가 튼튼하고 거버넌스가 좋은 국가들이 여성 대표성도 높고 부패도 낮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하고, 성평등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과 고용률, 행복지수가 높다고 한다.
성평등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정착을 이끄는 동력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대될수록 사회는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는 결국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변화로 이어진다. 경제인협회 관계자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여성 고용률을 높이

기 위해서는 자녀를 가진 여성인력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근로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와 함께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가능하다. 정치는 단지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벌어지는 제도적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과 직결된 공공의 문제를 논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단순한 대표성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이며, 여성의 정치적 발언권 확대는 성차별적 문화와 구조를 바꾸는 동력이다. 여성 정치인은 돌봄, 교육, 복지, 성평등, 노동권 등 기존 정치에서 소외된 영역을 의제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의사결정권이 강화될수록 여성폭력, 임금격차, 돌봄노동, 불평등 등의 문제가 공론화된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지면 정책이 가족·지역·사회복지 등 생활정치 중심으로 변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이런 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와 의사결정권 확대는 민주주의 심화와 사회 정의 실현의 필수 조건이다.
2026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각 정당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와 의사결정권의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천제도를 개선해주길 바란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일이다.

독자투고

2026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하지만 매년 요맘때 수험생을 노린 각종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수험생 할인 등을 미끼로 내세운 스미싱 문자 발송이다.
여기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를 뜻한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대표적인 스미싱 문자를 사용한 사기 메시지 유형으로는 “수능 합격! 꼭 되길 바랄게. 이제 보고 힘내(URL)” 등 박싱할 경우 순간적으로 클릭을 하도록 유도하는 교묘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이처럼 스미싱 사이버 범죄도 조심해야겠지만 이와 비슷한 수법을 사용하는 류심 범죄도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
류심 범죄란 악성코드 또는 유해 웹사이트에 연결되어 있는 QR코드 촬영을 유도해 클

수능 수험표 인터넷에 올렸단 낭패

영하는 순간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소셜결제를 교묘히 유도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여기에다 수능 이후 휴대폰 등 전자제품, 의류, 콘서트 티켓 등 물품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인터넷 사기도 증가할 우려도 있다. 스미싱 범죄는 개인 정보를 빼내어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더 추가하자면 수험표를 제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과거 수험표를 거래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 경우 수험생의 성명·주민번호 등이 유출되어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예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수능생 상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수험표를 SNS 또는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지 않는 것이다. 또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출처가 불명확한 미확인 인터넷 주소(URL)은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만약 이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문자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면 ‘시티즌 코난’ 등을 활용해 악성 앱 설치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 하는 조치를 하여 제2의 피해를 신속히 막아야 한다. 평소 예방법과 대응요령을 숙지해 두고 있어야 한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상서파출소장)

다카시 광장

어머니의 뒷모습

구순임

걸으시며 노래를 하시네
남군님 어디 가고 서산에
해만 지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걷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네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시작노트

젊어서 혼자되신 어머니
우리 오남매를 홀로
키우시고 모진풍파
다 겪으며 이제는 너무
연로하셔서 걷는 것도
부자연스러울정도다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나의 가슴을 울린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천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 고 문 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 케 팅 본 부	650-2070	광 고 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 영 지 원 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입 부 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